

# 글로벌 Young Architects 네트워크<sup>2</sup>

강 권 정 예 | 건축전문 프리랜서 기자  
by Kang, Jeong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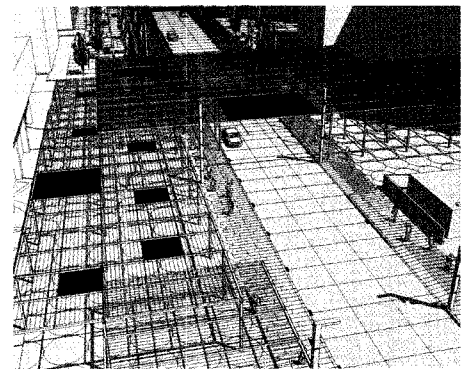
## [BAU 건축]

권형표 + 김순주 + 민우식

BAU 건축의 시작과 존재는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BAU는 블로그 아키텍처 유닛(Blog Architecture Unit)의 이니셜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그들이 블로그를 통해 만나 결성된 건축가 집단이란 것을 설명해 준다. 동시에 '짓는다(bau)'라는 말과 발음이 같아, 젊은 건축가로서 그들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건축에 있다는 것도 은연 중에 알 수 있게 해준다.

사실상 그들은 뉴미디어로 등장한 '블로그'를 통해 동년배의 젊은 건축가들이나 세상과 문턱 없는 소통을 시작했지만, 이러한 소통은 건축가로서 가질 수 있는 욕망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이였다. 그럼에도 그들의 욕망을 근원적으로 실현시켜준 것은 실제 건축 프로젝트였고, 디자인 조직으로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독립 건축가로 데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축가로서 그들의 시작이 카피와 링크로 수많은 자기 복제가 가능한 뉴미디어를 통해서 비롯되었다면, 그들의 작업은 스케치와 모형을 만드는 수작업을 늘상 동반한다는 것이다.

바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일 년여 동안, 그들은 크고 작은 근린생활 건물에서부터 천안 주류 박물관과 금천 패션IT문화 존과 같은 거리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개인 수주 프로젝트와 현상설계 당선 프로젝트를 병행해왔다. 그리고 서울 독섬유원지 자벌레 관 내부에 있는 비정형의 미디어 월과 벤치는 설계에서 시공까지를 망라하였다. 독립 건축가가 처한 아틀리에의 현실 프로젝트와 과거 그들이 규모가 있는 설계 조직에서 얻은 각자의 실무 경험과의 괴리는 PM 체제 하의 협력과 공동 작업으로 좁혀 들어간다. 필요에 따라서 국내외의 다른 건축가들과 공동 작업을 병행하기도 하였으며, 작은 전시를 하나 열만큼 종합무진 전방위적 활동을 해왔다. 짧은 기간 다량의 작업들에서 보이는 것은 작업의 영역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들은 건축 언어의 일관성이나 주된 흐름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반응하는 건축의 여러 모습과 과정 자체들을 드러낸다. 오히려 일관성이 필요한가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마치 연극에서 다양한 극중 인물에 몰입하는 배우와도 같은 모습을 자처한다. 그들은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하나씩, 지속적으로 짓는 것이 꿈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공 프로젝트의 현상설계에 도전한다. 그것은 작고 평범한 건축물을 하나씩 완성도 있게 만들어, 도시를 채워 가는 것이 사회나 문화적으로 유의미한 것이라 여기는 믿음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도시와 건축의 이상에 느리지만 진일보하는 방식이다.



금천 패션 아이티 문화존, 2009



천안 전통 민속주 전시 체험관 및 주제관 현상설계 당선안, 2009

## 프로필



권형표는 인하대 건축공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대종합설계, CSIDE 디지털공간연구소, 김이건축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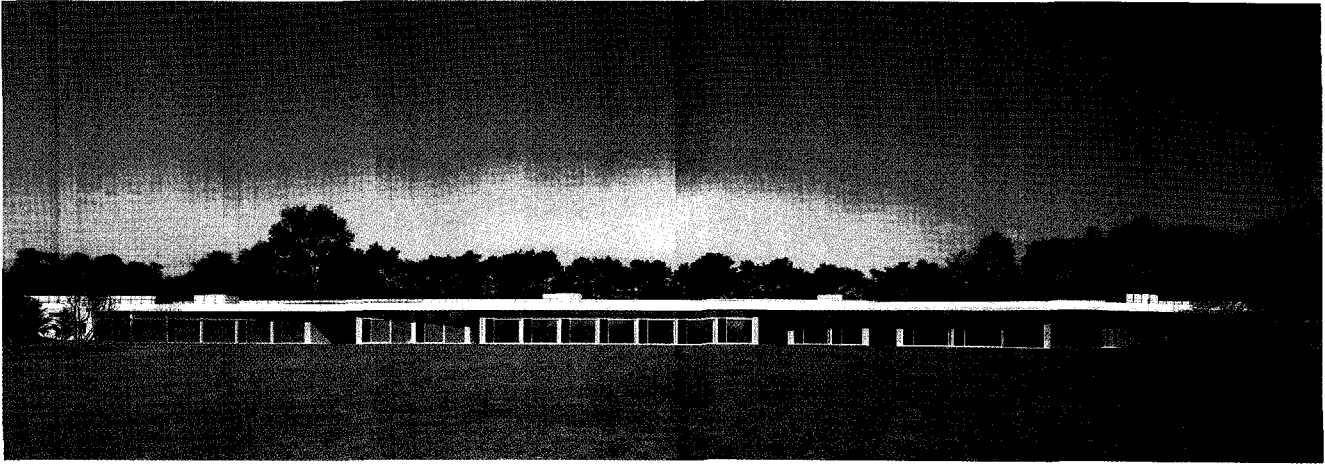
김순주는 인하대 건축공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원도시 건축연구소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권형표와 함께 '건축가 30대의 꿈'의 전시 초대작가였다.

민우식은 Univ. of Tennessee(BFA),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Cranbrook Academy of Art(M. arch.)를 졸업, 민설계, Steven Holl Architects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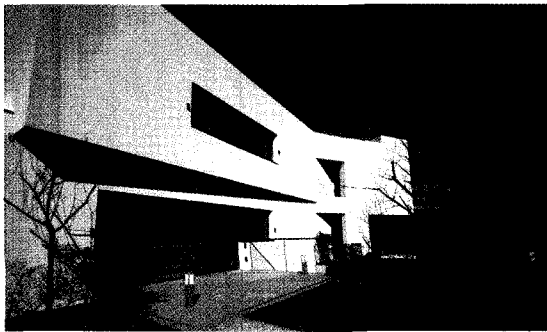
BAU건축은 세 사람의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판교의 파티오 하우스(중정형 주택)가 완공이 임박해 있고 천안에 주류 박물관 설계가 진행 중이다.

[S.A.A.I]

박창현 + 이진오 + 임태병



SKMS 연구소, 이천, 2007



분당주택, 성남,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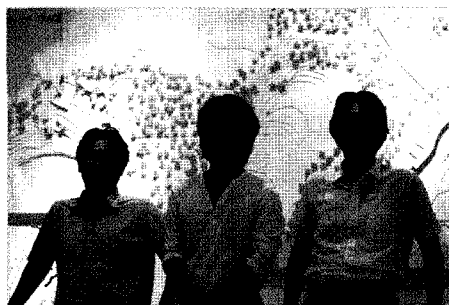
S.A.A.I의 첫 작업인 이천 SKMS 연구소는 2009년 한국건축가협회 상을 수상한 바 있다. SKMS 연구소는 단지 전체를 하나의 시나리오로 엮어내는 완성도 높은 작업이라는 평을 받으며, 신예 건축가 집단으로서 명성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이러한 첫 작업의 명성과는 달리 그들은 그들의 작업 공간이 있는 동네의 '동네 건축가'를 지향하며, 그에 따르는 독특한 작업 방식과 태도를 견지한다.

작업 공간에서 각자의 자리는 개인의 취향과 선호에 따라 배치되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효율성이나 긴밀함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전체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자극을 주고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향력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사무소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외부 활동을 병행하며,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에 무작위로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사무실의 규모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양을 조절한다. 현재의 시스템에 맞게 소화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수를 조절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 '잘 하지 못할 것' 같은 프로젝트는 거절하기도 한다. 네트워크가 취약한 젊은 건축가들이 의존하게 되는 현상 설계보다는 여러 관계망을 통해서 프로젝트 수주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기 보다는 완성도 높은 작업을 통해 건축주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그 관계를 통해 다시 프로젝트를 소개 받는, 느리지만 장기적인 전략을 취한다. 그들의 작업 자체에서도 드러나는 몇 가지 원칙들도 건축의 재료 자체보다 재료를 가공하는 노동을 더 바람직하게 여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완성도 높은 디테일을 추구한다. 그래서 SKMS 연구소처럼 완성도 높은 작업을 추구하는 원칙으로 다시 귀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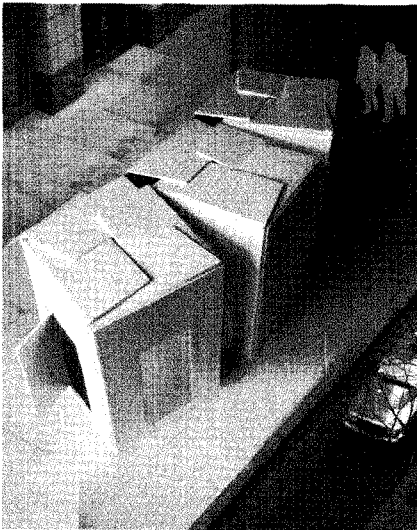
그들이 작업의 대부분을 토론과 합의에 의해 최적의 계획안을 이끌어내는 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으로, 기본적으로 셋의 공통된 성향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건축 프로젝트가 개별적인 접근에 의존하기 보다 합의와 토론에 의한 결과가 훨씬 더 좋다 라는 이유에서이다.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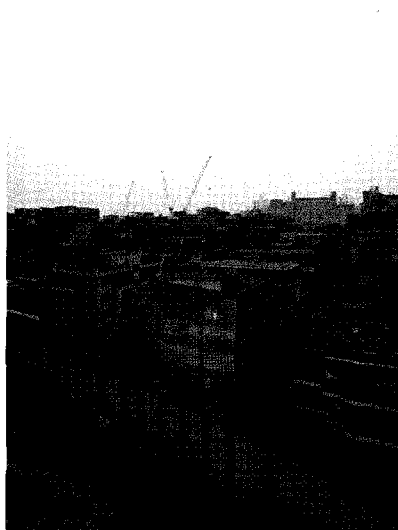


박창현은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 후 (주)위가건축, 두이건축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를 병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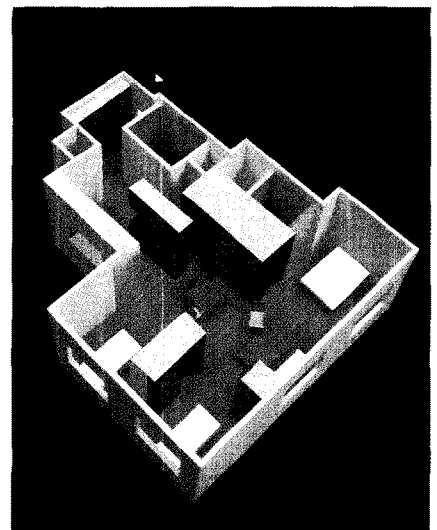
이진오는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을 졸업하고, (주)위가건축, D.P.J & Partner's, Korea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현재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겸임교수, 연세대학교 건축과에서 강의 중이다. 임태병은 경원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주)건축사사무소 A.I., (주)웬디디자인, (주)Minoru Yamasaki Architects, Korea 등에서 실무를 익혔으며, 현재 건국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출강 중이다.



모바일 갤러리, 2010



와이 하우스, 서울, 2010



광고 오피스텔 상가 및 단위 유닛기본설계 광고,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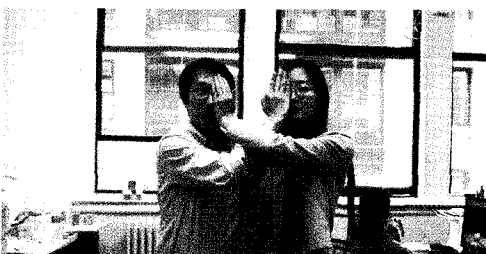
와이즈의 첫 작업인 Y-House, 도시 다세대 주택이나 근린생활 시설에서 피해갈 수 없이 주요하게 작동되는 팩터인 최대 면적과 저가의 공사비가 그대로 적용되었다. 로프트가 있는 중이층의 세대를 투명한 막으로 씌운 형태로, 평당 320만 원의 저 예산가 건축이다. 또 2.4×1.2m의 작고 가벼운 구조물로 이루어진 모바일 갤러리 역시 초저예산가에 맞춰진 이동식 공간 시스템이다.

와이즈의 작업은 이러한 '작은 것들(Smallness)'에 주목한다. 주거 유닛이나 도시 다세대 주거에서 상업 공간의 리노베이션, 모바일 갤러리 등, 규모는 작고 대상은 지엽적이며, 타 분야 전문가 그룹과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리고 건축 설계에서 인테리어, 가구 디자인의 영역에까지 이르는 올 라운드 플레이를 펼친다. 동시에 그들의 작업은 커뮤니티를 근간으로 진행되는 자기 동기부여(Self Motivation)형 작업들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그들의 작업 공간으로도 쓰고 있는 Y-House는 도시 골목길과 연계되는 작은 공간에서 이웃들이 머무르고, 동네 아이들과 벽화 작업으로 함께 공간을 만들어 갈 여지를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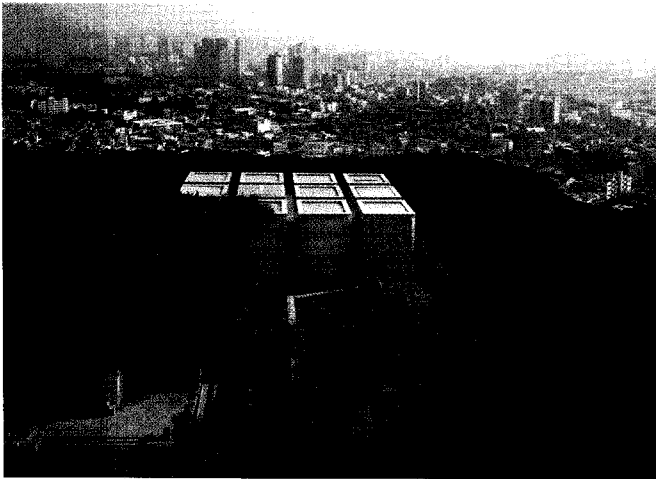
그들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바탕에는 건축 자재를 재활용하거나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디테일에 대한 고민과 실험들이 있다. 와이즈 건축의 작업 공간이 공구 상가가 밀집해 있는 을지로와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성수동 사이에 있는 것도, 언제든지 재료를 구입해 디테일을 만들어보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더욱 수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들의 고민과 실험은 직관적이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것으로, 오히려 일상을 비일상적인 것으로 보는 그들만의 특별한 안목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다.

이것이 그들의 바탕이 되고 있는 이전의 건축 경험과 그들이 받은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기 보다는, 일 년이 채 되지 않는 독립 건축가로서 역시 제일 큰 고민인 '어떻게 일거리를 만드느냐' 하는, 역시나 외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제스처여라 할 수 있다. 대량 반복 생산에 의한 저예산의 건축 생산 시스템과는 달리, 장인적이면서 기존과 차이를 두는 그들의 작업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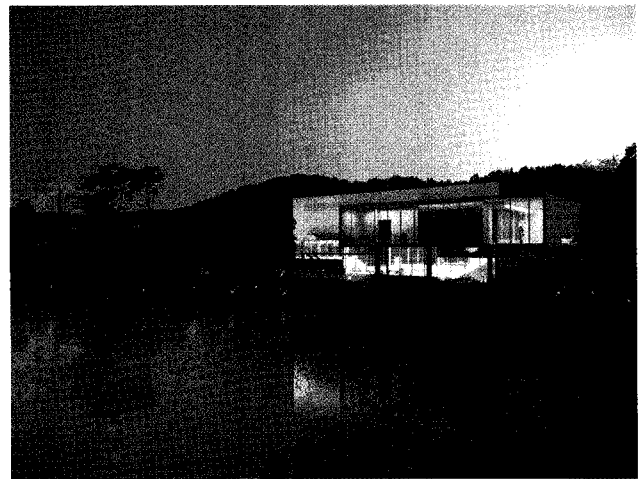
프로필



장영철은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U.C. Berkeley에서 수학하였으며, 이로재, Steven Holl Architects, Rafael Vinoly Architects에서 실무를 하였다. 전숙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Princeton University에서 수학, 이로재, Gwathmey Siegel & Associates Architects에서 실무를 하였다. 장영철과 전숙희는 공동으로 2008년 'WISE ARCHITECTURE'을 개소 후, 뉴욕에서 체스터필드 펜트하우스를 설계하였고 서울에서 로프트 형식의 플라스틱 주택(Y-House)을 지었다. 현재 여러 집단과 연결되어 건축 놀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안중근기념관, 서울, 2010



헤이리 갤러리, 2010

디림(D-LIM; Design & Life in Mind) 건축에게 건축 철학은 선불리 말하기 조심스럽고 앞으로의 가능성으로 남겨두는 부분이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작업에 표현해야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그들은 철학이라는 것 대신에 도시와 건축이 지나친 장식과 쉽게 빨리 변하는 트렌드를 좇는 것이나 건축물의 지속성에 대해 생각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과 문제 의식을 갖는다. 또한 건축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들을 견지한다. 그리고 그것을 건축가가 줄 수 있는 건축의 메시지로도 설명한다. 그들에게 건축적 메시지는 건축이 오래 남아 있도록 해주는 것이며, 건축가 스스로가 느끼는 자부심과도 같은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건축적 메시지는 늘 두 가지 시선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진다. 지속 가능성과 지속 불가능성, 기술과 반기술, 투박함과 세련됨, 지역성과 보편성 같은 것들에 이중적이고 모순된 물음이 두 가지 시선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안중근 기념관에서는 화려하면서도 비슷하게 드러나는 현상 설계의 패턴이나 건축의 보편적인 기능이 하나의 시선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와 형태로 구현되는 건축적 아이디어가 또 하나의 시선이다. 칼날의 양면 같은 두 시선은 작업 단계마다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작은 도서관에서는 하나의 일관된 시나리오로 유지되기도 한다.

그들은 운이 좋아 현상 설계에 당선된 프로젝트가 첫 작업이 되었고 건축상까지 수상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틀 안에 스스로 가둬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건축가의 메시지가 약한 현상 설계 작업도 의미 있는 것으로 둔다. 그리고 그들이 꾸준한 관심사는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들이다. 현재 에너지 절약에 집중돼 있는 이슈를 계획 단계에서 코워킹으로 풀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그들의 과제이며, 연구 주제다. 어쩌면 자연이나 친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성은 건축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와 인간의 삶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가치들로도 보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가치를 지속 가능성이라는 논리로 풀어내고, 설계 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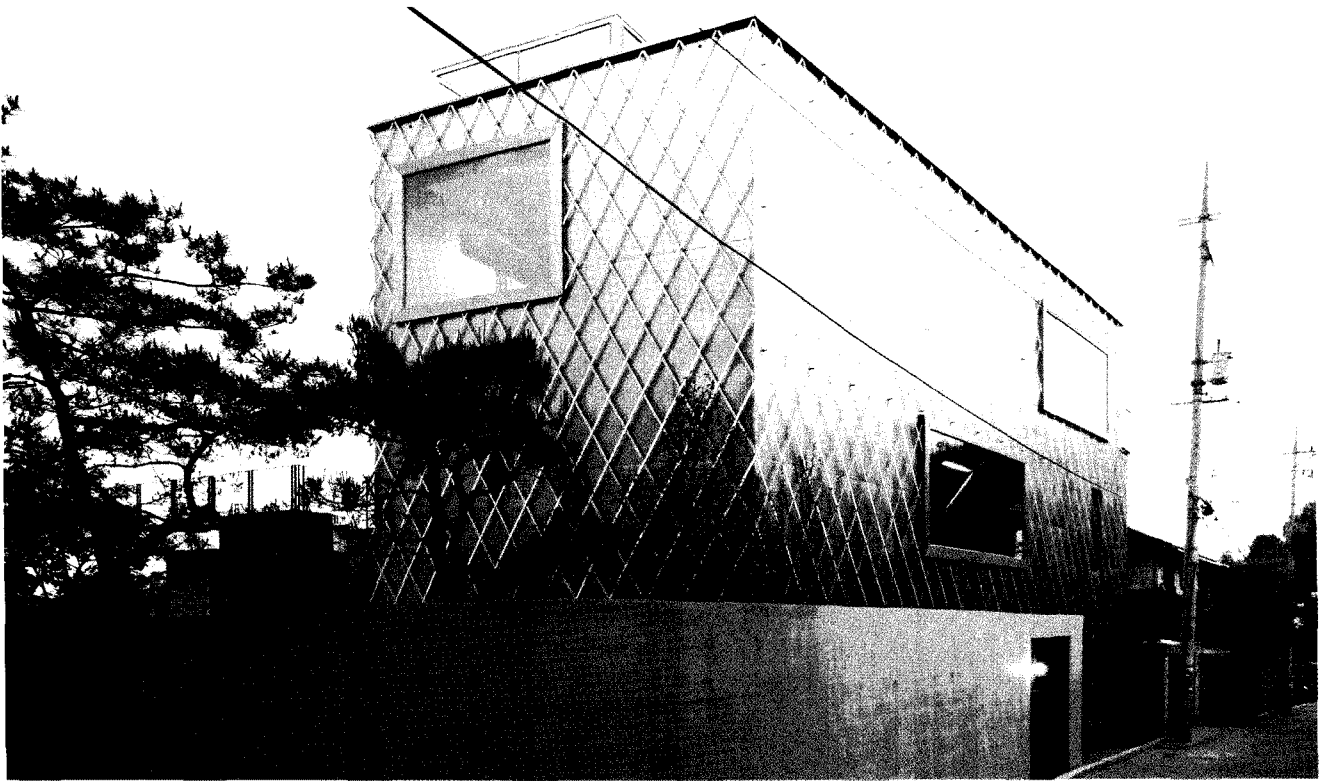
**프로필**



임영환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건축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Granary Associates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2006년부터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에서 조교수로 있다.

김선현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수년간 실무 경험 후에, 하버드 건축 대학원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마쳤다. Jones Lang LaSalle과 Skylan, Inc.에서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하였으며, 같은 해 '안중근 기념관'으로 서울시 건축상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스틸 레이디, 서울, 2008. © 박완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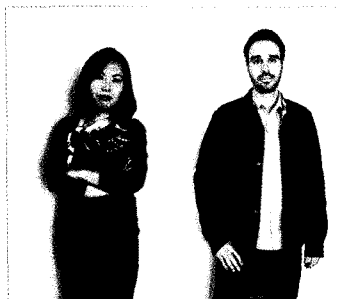
실버 새크, 서울, 2009. © 박완순

최-페레이라 건축의 작업은 개별 프로젝트가 처한 도시, 경제, 사회적 맥락들에서 모티브를 얻는다. 실험실에서 여러 인자와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하듯 작업을 진행한다. 그들은 건축을 만들어내는 마술과 같은, 또는 기계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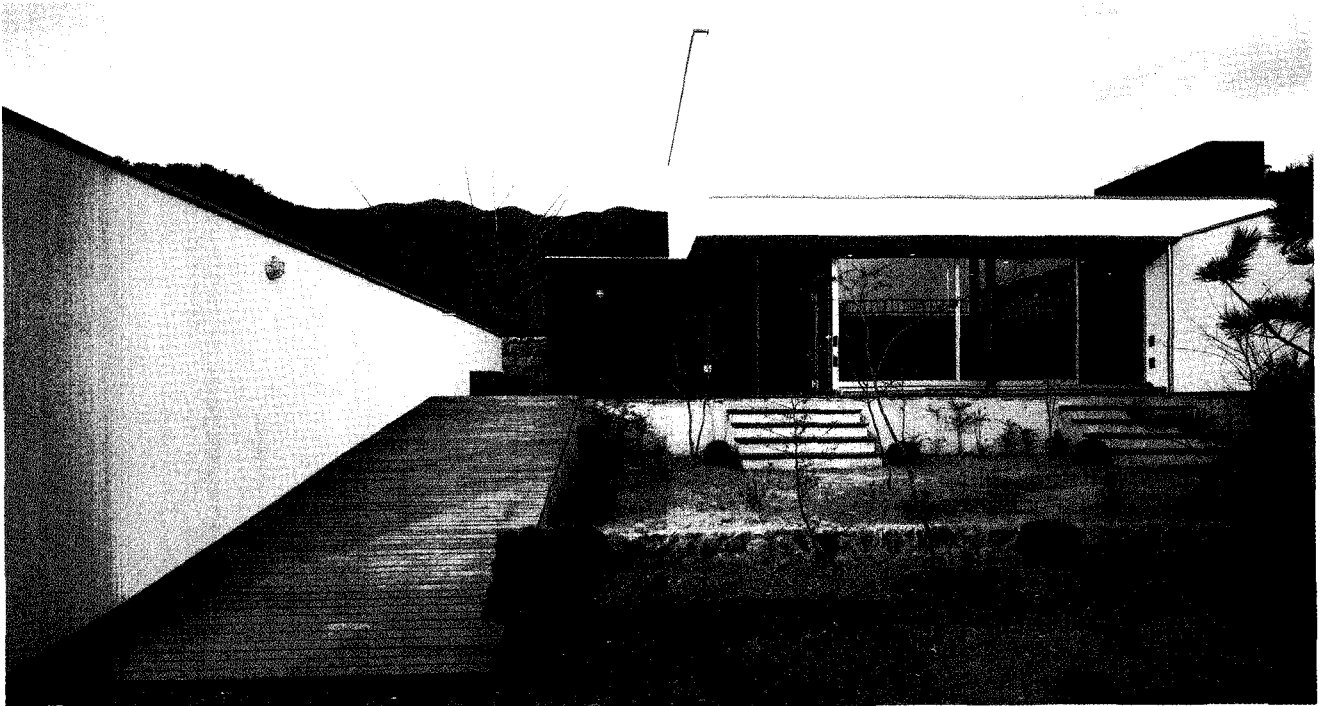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건축의 이상이나 개념들도 프로젝트가 처해 있는 물리적 현실과 함께 하게 되며, 개별 프로젝트마다 어느 시점에 재료와 공간이 바뀌면 개념과 건축적 이상도 수정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건축과 갖는 관계는 매우 개인적이며 개별적이다. 그들이 작업하는 방식은 마치 19세기까지의 장인들과도 닮아있다 볼 수 있으며, 그들이 생각하는 건축가의 역할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늘 그래왔듯이,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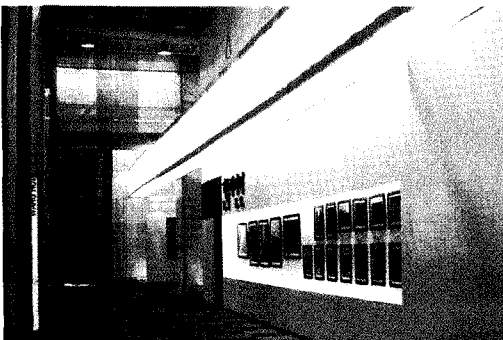
### 프로필



2005년 최-페레이라 건축은 최성희와 로랑 페레이라가 함께, 2005년 서울 공연예술센터 국제 아이디어 설계경기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첫 주택설계 작품 GODZILLA로 2009 서울시 건축상, 2009 한국건축가협회 엄덕문 상을 수상하였고, 2010 하버드 대학 한국건축 특별기획전에 참여했다. 최성희는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와 프랑스 파리 라 빌레트 국립건축대학을 졸업하였다. 로랑 페레이라는 생 퐁 건축 대학 졸업 후, 아틀리에 장 누벨, 한양대 초빙 교수를 거쳐, 현재 숭실대 건축학과 교수이다.



내동 K씨 주택, 200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2008

역할은 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공유하고 알리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드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 중 큰 부분은 건축가 자신의 성숙과 사회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며, 건축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데 많은 의미를 둔다.

그는 무엇보다 일관된 테마 혹은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유형화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합리적인 판단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로서 존재하고자 한다. 건축가로서 가진 것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보다 항상 더 중요한, 공간과 사건의 본질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웃사이더 건축가로서 그가 건축하는 방법론이다.

김현진은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규정한다. 지역에서, 독립 건축가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선택적이고 자발적인 비주류 건축가이다. 기대하는 이윤에 맞춰 베드수와 병원의 규모를 정하는 인사이드 의사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의 병원을 운영하는 아웃사이더 의사를 비교하자면, 분명 본질적으로 아웃사이더에 가깝다. 그의 건축은 작가적 언어와 일관성보다는 펼쳐진 상황과 조건에 따라 생성된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담은 건축의 속성처럼,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자아가 아니라 타인의 자아에 몰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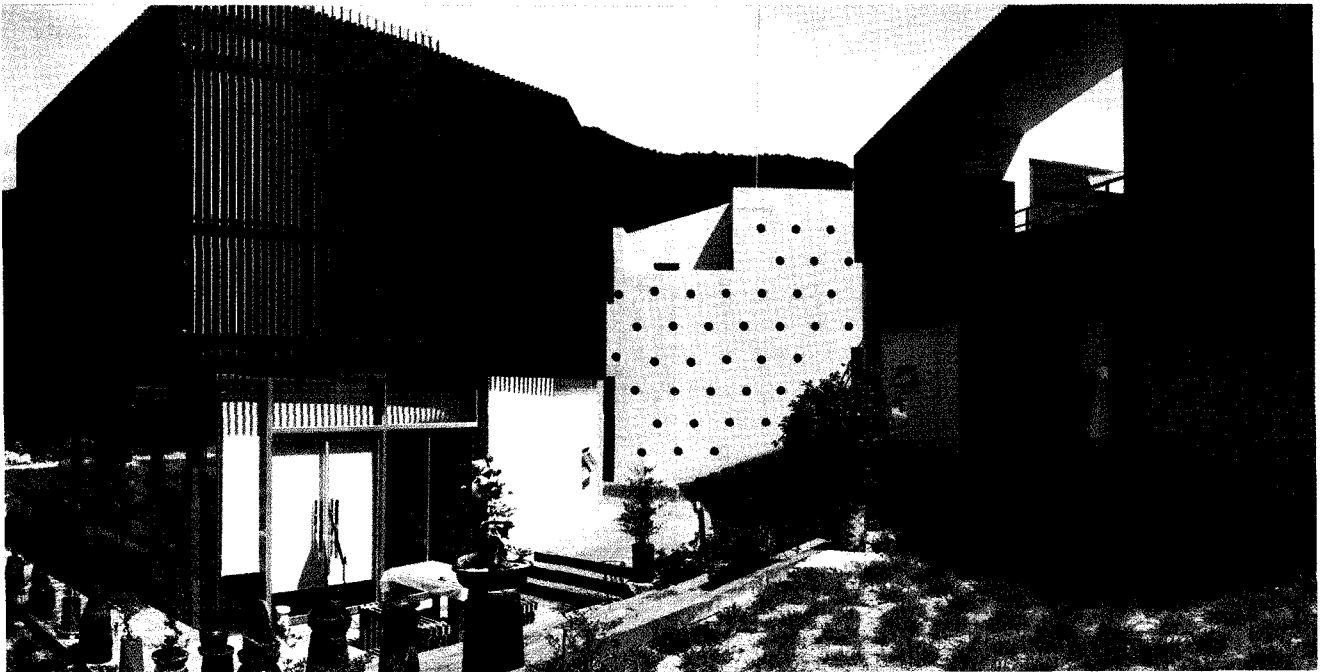
그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 건축가로서 역할은 최근의 청각 장애인 학교의 공간 환경 개조와 같은 공공 건축 프로젝트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건축가로서 그가 하는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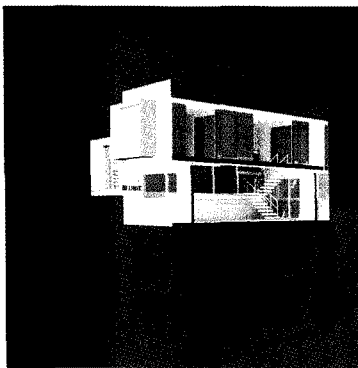


김현진은 경북대학교 건축공학과와 프랑스 파리-리빌레르 국립건축대학을 졸업하고 장 피에르 뷔피 건축사사무소와 (주)동우 E&C에서 실무를 하였다.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사무국장과 2008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공동 마스터 플래너 등을 맡은 바 있다.

한미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KOMA) 국제현상설계에 당선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9년 '젊은 건축가 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SPLK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자,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서산주택, 서산,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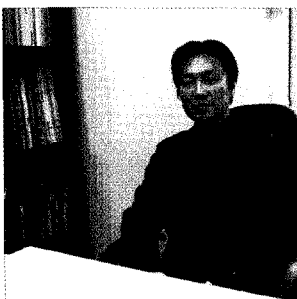


모듈러 주택, 2007

디자인그룹 오즈(DGOZ)는 건축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정의를 내린다. 오즈가 오거나이즈(Organize)의 약자를 표방하듯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조율하고, 조직체를 조직하는, 제반 코디네이터 역할을 포괄한다. 공공 디자인의 기획, 건축의 발주 방식이나 정책에 이르기까지, 넓은 분야에 까지 포진되어, 연구나 지식 기반의 작업들이 병행된다. 그래서 결과물은 건축물이 아닌 형태로 드러나기도 한다. 가령 모듈러 주택은 두 가지 타입의 모듈(모듈러 플랫폼과 선택 모듈)로 구성된 주거 시스템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거 모듈을 선택하여 다양한 공간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고안된 주거 시스템이다.

디지오즈의 작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의, 수동적 의미의 협업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협업 구도로 가져가게 할 것인가에 맞춰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많은 프로젝트가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영역별로 나뉘어, 공동 제안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프로젝트마다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줄 것인가'를 항상 중심에 둔다. 가령 모듈러 주택 또한 제한된 예산으로 더 싸고 잘 지을 수 있는 집을 고민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결국 디지오즈의 작업은 프로젝트를 통해 항상 한계 상황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냄으로써, 인터 디서플린(inter discipline)이라고 하는 통합 디자인의 영역으로 확장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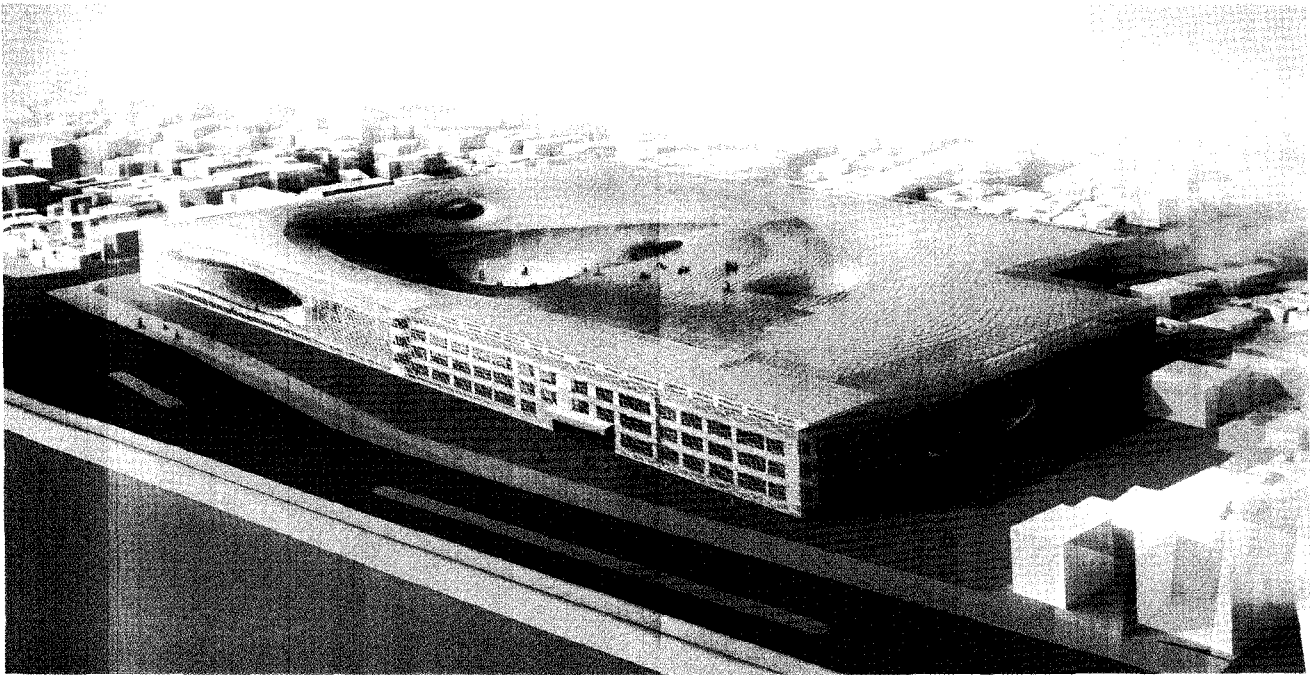
### 프로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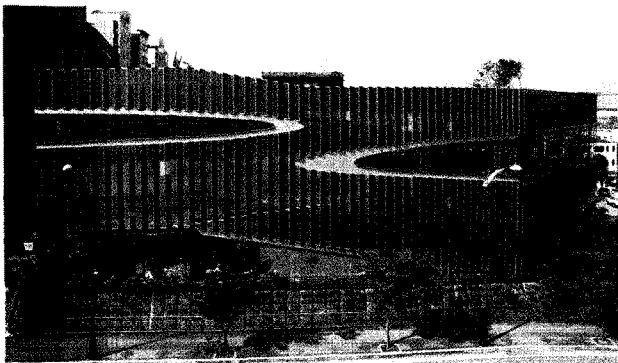
신승수는 현재 (주)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 소장, 서울대학교 설계 스튜디오 튜터,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이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석사, 베를라헤 건축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부건설, 김이건축, 이룸건축에서 실무를 하였고 건축사의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제도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젊은 건축가 상'을 수상하였으며, 2010년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작가 겸 부 커미셔너로 활동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제 현상설계 우수작



헤르마 주차 빌딩, 서울, 2010

이정훈의 헤르마 주차 빌딩이 최소한의 기능과 샌드위치 패널로 점철되던 주차 빌딩에 대한 고정 관념에 도전했다면, 한편으로는 건축계 지각 변동을 예고한다. 자동화 된 패널리제이션과 그에 따른 매스 프로덕션의 가능성을 중, 소규모 건축물에서 보여줌으로써, 건축설계 사무소의 시스템과 규모의 변화를, 그리고 건축 산업의 생산력 측면에서 건축 테크놀러지에 대한 핫 이슈를 이어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저가의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매스 프로덕션의 시스템이 이정훈의 작업에서는 작은 규모의 건축물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헤르마 주차 빌딩에서처럼, 독특하면서도 다양한 입면 패턴, 얻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의 공간 볼륨, 그리고 장소성

과 입지를 부각시키는 효과와 같은, 건축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본질적으로는 건축의 표면성이 공간성으로 어떻게 구현될지, 앞으로 그의 작업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들이기도 하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에 더 좋은 퀄리티를 요구하며 잠재되어 있는 건축 디자인 수요층에게 제대로 된 롤 모델이 부족한 현실에, 그의 전략은 잘 보이지 않았던 건축주 계층을 발굴하고 계발하며,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눈을 지역으로 눈을 돌려 그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지역의 방치되어 있던 중, 소규모의 건축물에서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 도시 중소규모 건축물의 업그레이드 역할은 주목할 만 하다.

### 프로필



이정훈은 성균관대학교에서 건축학과와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프랑스 낭시 건축학교에서 건축 재료학으로 석사를, 파리 라빌레트 건축학교에서 건축이론 석사를 취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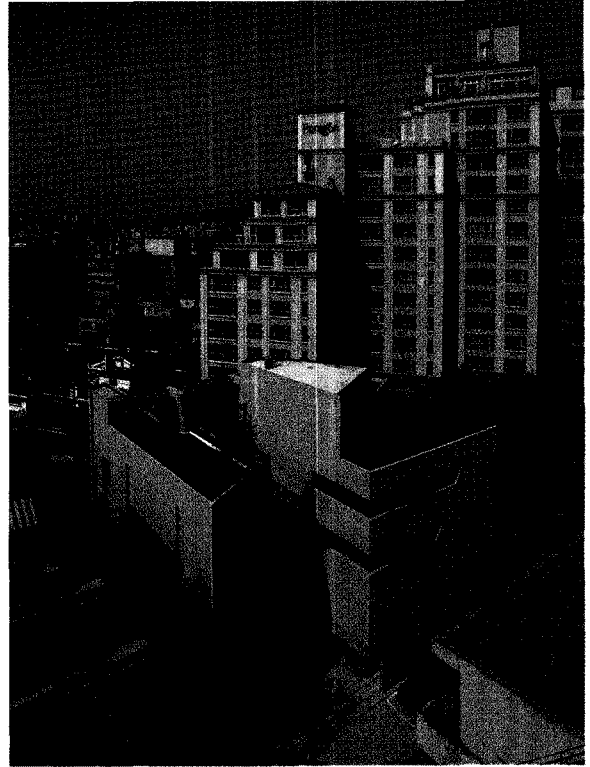
시계루 반 유럽 사무소, 런던 자하 하디드 사무소에서 활동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국제 현상에서 우수작, 전곡리 선사유적박물관 국제 현상에서 Merit Award 등을 수상했다.

2009년부터 JOHO Architecture를 설립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겸임교수로 있다. 2010년 '젊은 건축가 상'을 수상하였다.





화이트 채플, 미국, 2002



엠 플러스, 서울, 2009

건축가로서 그는 현상 설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거의 하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놓고 볼 때, 현상설계에 의한 프로젝트는 일정 시점에서 건축가의 손을 떠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가 하는 프로젝트는 개인 건축주에 의한 것들이고 슬로우 푸드처럼 오랜 기간 공들여 진행한다. 주택 하나 설계하는 데에 보통 1년이 소요되고 그 보다 더 걸리기도 한다. 시간이 오래되는 만큼이나 작업 과정이 많다. 그는, 건축의 결과물만큼이나 과정에서의 경험과 프로세스가 소중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건축하는 이유나 목적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에게 의미 있는 건축은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건축에서 이야기가 건축주의 이야기로 대표되지는 않는다. 도시의 수많은 건물의 건축주와 소유주가 다르고, 사용자가 또 다른 만큼, 수많은 건축물들은 건축주만의 건물이 아니고, 건축주만의 이야기로 이어지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시 못 하는 자본의 역할을 중요하게 본다. 그의 건축 이야기는 건축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말이나 글로써, 전시나 출판으로써도 드러난다.

그가 오랜 시간 천천히 건축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온갖 건축적 아이디어를 고안해 보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철학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 건축 철학을 소극적으로 이해한다면 건축가 개인의 건축관 정도이겠지만, 그것을 넘어 발생하는 소통이고 건축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통의 방식 또한 느리고 다방면에서 접점을 만들어낸다. 그는 사항 길에 들어선, 아니 거의 죽었다고 하는 건축 비평, 건축 이론을 살리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꿈꾸는 것이라 한다. 궁극적으로는 그의 건축 작업이 건축 이론과 병치되는 것을 스스로 보고 싶은 것이며, 그가 건축가로서 생존하는 방법이자, 경쟁력인 것이다.

### 프로필



조한은 홍익대 건축학과와 예일대 건축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VOA Associates, Perkins & Will Inc., Solomon Cordwell Buena & Associates, Inc.에서 근무했다.

그는 다양한 생태철학 기반의 건축 디자인 철학 및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

2009년 대한민국건축문화제 MP로 활동하였고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 제 2회 '젊은 건축가 상'을 수상하였다.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자, HAHN Design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다.